

교 회 소 식

1.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성령강림 후 셋째 주일입니다.
2. 다하나교회에 처음 오신 분과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 부서지기 모임이 주일 저녁 8시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4. 다음 주일 예배는 담임목사 휴가로 미네소타한인장로교회 부목사님이신 김인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다음주 예배봉사자

- 기도: 김태하 / 설교번역: 최은지
- 7월 안내 및 봉사: 어벤저스 목장

*향후 교회 행사 (Church Plan)

- 야외예배 : 8월 24일, Silver Lake Park

*성서일과 Lectionary (제 26주)

왕상 19:15-16, 19-21 / 시 16 / 갈 5:1, 13-25 / 눅 9:51-62

교회세운날 2017.6.11

25-26

6월 29일 (성령강림 후 셋째 주일)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주 일 예 배 : 매주 주일 오후 3시
수요기도회 : 6월부터 8월까지 쉽니다.

3401 SALEM RD SW, ROCHESTER, MN 55902

Web : <https://mnrochesteroneheartchurch.com>

담임목사 : 김경현 목사 (213-357-7614)

예 배 순 서

인도자: 김경헌 목사

예배로의 부름과 기원 — 시 66:8-9,20 — 인도자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기도 — 이건영

찬송 —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같이

성경봉독 — 요나 1:4-10 — 인도자

설교 — 잠자는 자여, 어찌 함이나 — 김경헌 목사

봉헌찬송 —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 5절) — 다같이

봉헌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파송찬양 —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 다같이

*축도 — 인도자

* 표에는 일어납니다.

목회편지 / 무엇이 선한 일인가

요즘 비가 자주 내리네요. 이번 주에는 토네이도 경보와 알림 문자까지 올린 군요. 날씨가 참으로 변화 무쌍합니다. 지난 주말 기승했던 무더위가 이번 주의 잦은 비로 다 사라졌습니다. 어느새 옥수수는 갈색 밭이 안 보일 정도로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계절의 변화에 감탄하면서도 시간의 속도에 발맞추지 못하고 허덕이는 느낌입니다. 벌써 6월 말이라니 실감이 나시나요? 한 해의 절반이 지난 겁니다. 한 해의 절반을 무사히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반년을 보낸 것은 아닌지 겸허해집니다. 작년에 오스 테드 메디컬 센터에서 메이요로 병원을 옮겨서 진료를 봐오고 있습니다. 병원을 옮긴 이후 주치의 선생님을 지난 달 처음 만났습니다. 출산 휴가로 1년 이상 비우고 돌아온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첫 만남이다 보니 이것 저것 꼼꼼히 물어 주시고 돌아주시는 느낌이었습니다. 암수술 부위에 대한 팔로업을 4년 동안 하지 못한 터라 선생님께 요구해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MRI와 CT 검사를 받게 되었죠. 검사결과가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별 다른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소견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9년 전 수술 한 부위의 조직 검사 결과가 암으로 판명 됐을 때, 태어나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술 이후 행한 정밀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들었을 때 새 삶을 선물로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의 삶은 덤으로 주어진 보너스 인생이란 생각으로 살아 왔습니다. 아등바등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발버둥치는 삶이 부질 없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선물이요 은혜임을 알게 되었죠.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루 하루가 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술 후 9년 동안 아무 이상 없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생명(生命)을 주신 이유는 사명(使命)을 감당하라는 주님의 뜻을 믿고 사명을 위해 달려가길 애쓰겠다 다짐해 봅니다. 이곳에 제가 있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내게 생명 주신 이가 무슨 사명으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 돌아보는 것이지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쉬파트를 실천한다는 것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드라는 사명이지요. 사회적 지위나 재산의 많고 적음, 다른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모두가 동일한 대우를 받고 존중 받는 공동체를 만드는 꿈이 구약 성경 전체에 드러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모두가 존중받고 사람 대우 받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향한 꿈이지요. 헤세드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이 공기가 되는 공동체를 향한 꿈입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과 인자함이 덕이 되고, 그 덕을 이루기 위해 실천하며 나를 다듬어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돕는 꿈입니다.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교회 밖 일상에서 우리가 이뤄 가야 할 삶의 태도이겠지요. 공의(미쉬파트)와 인자(헤세드)와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삼박자가 이뤄지는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꿈을 이루라고 하시네요. 생명의 주인이시며 사명 주신 주님의 무익한 종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합니다.